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09

2015 | Vol. 528

사타 침하교, 고치현 시만토시 사타 (佐田沈下橋, 高知県四万十市佐田)
Photo: Kazuhisa Ishikawa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



주최 :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운영위원회
후원 : 외교통·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국립국제문화재단, 관공정,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주최 :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운영위원회
후원 : 외교통·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국립국제문화재단, 관공정,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주최 :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운영위원회
후원 : 외교통·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국립국제문화재단, 관공정,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대국에 대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9월 19일(토) 신촌 연세로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퍼레이드에서는 '통신'이란 말처럼 서로의 신의를 다졌던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는 동시에 '한일축제한마당 출연진의 퍼레이드'가 실시된다.

그리고 9월 20일(일) 코엑스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별기념 공연으로 세계적인 연주자 히다노 슈이치, 미키 요시노, 다카하시 게타오, 야기 노부오, 잇사이로 구성된 '히다노 슈퍼 다이코 그룹'의 공연과 히다노 슈이치와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합동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공식홈페이지(www.omats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개요

행사명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일시/장소 9월 19일(토) 11:00~18:00 신촌 연세로

9월 20일(일) 10:00~19:30 COEX 전시장 B홀

테마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5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5 운영위원회

후원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공정,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문의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한국측운영사무국

TEL : 02-702-7775 / FAX : 02-702-7798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이 9월 19일(토)과 20일(일) 이틀에 걸쳐 신촌 연세로와 COEX에서 각각 개최된다.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다. 2014년 한일축제한마당에는 하루 동안 약 5만 명의 시민과 750 여 명의 젊은 자원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한국과 일본 양국 신문과 TV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을 테마로 한일 양국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상

9월 19일(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퍼레이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야외 퍼레이드가 젊음의 거리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된다. 이번 퍼레이드는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며, 실제로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갔던 일본 각 지역의 전통공연팀과 기타 출연팀의 퍼레이드에 이어 한일 일반시민들이 함께 '요사코이 아리랑'을 추면서 한일문화교류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500명 규모). 또한 조선통신사 홍보 부스도 설치 될 예정이다.

그리고 퍼레이드 전에는 작년도 일본전국머칭대회에서 그랑프리인 내각총리대신상을 수상한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140명 규모) 등의 공연이 진행되며, 스타 광장에 설치된 메인 무대에서는 퍼레이드 공연팀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진다.



광명시립농악단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데루야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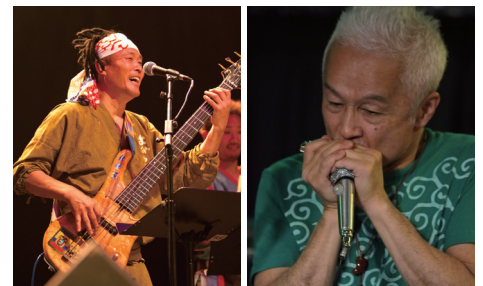
※ 조선통신사란 : 조선통신사는 한일 양국의 평화를 기원하며,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200년간 일본을 12차례 방문했다. '통신(通信)'이란 서로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로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는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9월 20일(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

한일축제한마당의 이튿날인 9월 20일(일) COEX 전시장 B홀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과 일본 공연단체의 무대공연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 · 푸드 부스와 지자체 · 기업 부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풍성해진 축제를 구성한다.

공식사회자는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후지이 미나(藤井美菜)와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KBS 조충현, 오승원, 원석현 아나운서가 1,2,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프닝에서는 마칭밴드 부문 최고 밴드인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스트리트 퍼포먼스 <퍼니본즈>의 공연으로 제11회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의 막이 올라간다.



히다노 슈퍼 다이코 그룹



서울일본인학교

[제1부 : 공식행사]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축하공연으로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가 양국 우호관계를 염원하며 'Together' 를 양국어로 부른다.

이어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 공연(1)에서는 2002년 FIFA 한일월드컵축구대회 폐회식을 장식한 세계적인 다이코 드러머 '히다노 슈이치'와 일본이 사랑하는 록 밴드 'GODIEGO'의 리더이자 세적인 키보드 주자 '미키 요시노', 라틴 음악계의 선구자 '다카하시 게타오', 일본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야기 노부오'. 젊은 북 퍼포머로 장래가 기대되는 '잇사이',



상명 한오름무용단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에픽하이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 5명이 최고의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춘향가 8시간 완창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천생 소리꾼 이자람을 중심으로 이민기(기타), 이향하(퍼커션), 김수열(드럼), 강병성(베이스)가 함께 하는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한일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일합동공연을 펼친다.

[제2부 : 함께 열어요]

2부에서는 '함께 열어요'를 테마로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14개 단체의 멋진 공연이 선보인다.

일본의 전통 춤인 아와오도리를 보여줄 <모미지렌>, 독창적인 신개념의 예술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상명 한오름무용단>, 오키나와의 유명한 북 연주자로 구성된 <테루야청년회>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제주도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다 이내믹하고 수준 높은 공연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낸다. 이어서 <시모노세키 헤이케 오도리>, 와다이코의 매력을 전해 주는 야마나시현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의 무대가 펼쳐진다. 그 외에 한국공연단체인 <와이즈발레단>은 클래식 발레부터 아트 콜라보레이션까지 다양한 예술의 표현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요사코이 춤을 개성 있게 표현한 <약동>을 비롯하여 여성으로 구성된 <드림라인 R.I.M>의 남성 못지 않은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보는 이를 사로 잡는다.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는 치어리딩계 최초로 3차례 3관왕을 달성한 팀으로 높은 수준의 치어리딩을 보여준다.

2부 마지막으로는 요사코이를 응용한 쓰시마 댄스팀 <사쿠라 유키 Ma-u>와 한일합동공연단체 <하나코리아>가 일본의 '요사코이 나루코 춤'과 한국 민요 '아리랑'을 결합시킨 '요사코이 아리랑'을 추면서 '함께 열어요'라는 테마에 맞게 화합의 장을 열어간다.

[제3부 : 새로운 미래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별공연 (2)는 <에픽하이>의 K-POP 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3부 테마에 걸맞게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신명 나는 사물놀이는 행사장을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든다. 특히 올해는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표현하는 피날레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진도 강강술래를 시작으로 일본의 '요사코이 소란'과 한국의 '아리랑'을 융합한 <요사코이 아리랑>을 한국과 일본 출연진 및 관객, 자원봉사자, 관계자가 함께 추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마련한다.

[부스행사]

'문화체험 · 푸드부스 뿐만 아니라 '지자체 · 기업부스'를 적극 유치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일 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일전통의상 체험부스>, <한일전통놀이 체험부스>, <소원별 만들기>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코스프레 의상체험>, <식품 샘플 만들기 체험>, <가베동>, <가루메이크업 체험> 등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국내의 지역활성화 단체 66개로 구성된 <아이 B리그>에서 주최하는 <B-1그랑프리> 이벤트에 참여하는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도요카와 이나리스시(유부초밥)>, 오이타현 사이키시의 <사이키 고마다시(참깨국물) 우동>을 시식할 수 있는 부스도 참여한다.

일본의 공예와 민예 - 도호쿠의 美

Beautiful Handicrafts of Tohoku, Japan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일본의 공예와 민예: 도호쿠의 美'전이 서울, 부산, 제주에서 개최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품에서 피어난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공예와 민예의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호쿠는 아오모리현(靑森県), 아키타현(秋田県), 이와테현(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야마가타현(山形県), 후쿠시마현(福島県) 6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일상적인 물건부터 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찍이 민예운동을 추진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는 도호쿠를 여행하며 그 기예의 훌륭함에 매료되어 많은 기물(器物)과 도구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민예운동에 참여했던 가와이 간지로(河井寛次郎), 하마다 쇼지(濱田庄司), 세리자와 게이스케(芹沢銈介), 무나가타 시코(棟方志功) 등은 도호쿠 공예에 감명 받은 예술가들로서 특히 무나가타는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도호쿠에 강한 애착을 갖고 향토의 풍경과 사물들을 모티브로 판화, 육필화 등을 제작하기도 한 일본을 대표하는 판화가다. 무나가타를 포함하여 전시에서는 도예가 가와이, 하마다, 염직물 공예가 세리자와의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일시 9월 16일(수)~10월 2일(금) 10:00~17:30(토, 일요일 및 28~29일 추석연휴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제1회 고교생 일본동아리대회 개최

고등학교 일본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일본, 일본어 및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1회 고교생 일본동아리대회'를 개최한다. 우수동아리에는 10일간의 일본초청 및 다양한 시상이 주어진다.

일시 9월 19일(토) 14:00~

장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참가학교

학교	동아리	장르	지도교사
1 칠원고등학교	Our's Hour	J-POP밴드	지명진
2 성평여자고등학교	니혼고신책부 (にほんごさんぽ部)	스피치	윤경은
3 장유고등학교	찌찌문과 친구들	콩트	박유진
4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하이쥬(薙良)	연극	박주현
5 경혜여자고등학교	일본문화부(アオハライド)	J-POP	정지은
6 창원서파고등학교	日本語研究室	Voice Acting	오주영
7 문경여자고등학교	하나즈카(하나부사)	J-POP, COSTUME PLAY	서재용
8 경주고등학교	Golum(ゴロム)	커버댄스	박덕환
9 진영고등학교	하치코(はちこ)	J-POP 및 콩트	방정희
10 진해여자고등학교	ONE PIECE	J-POP	박재경
11 동주여자고등학교	アニメ研究部	스피치	곽성혜
12 대전정보통신고등학교	대전일본어보이스액팅	Voice Acting	곽성혜



주한일본대사관 선발 한국청년방문단

주한일본대사관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올 여름 69명의 한국 고등학생과 107명의 한국 대학생을 선발하여 일본에 파견했다. 학생들은 동 세대의 일본 학생과 만나고 일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새롭게 발견하는 동시에 따뜻한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Cool Japan 리포터'로서 일본을 방문한 그들의 소감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cafe.naver.com/youthexchangejprk>



진짜 오키나와를 보여줘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장한별

9박 10일 간의 JENESYS 2015 방일 프로그램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일본의 매력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홈스테이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오키나와 요미탄촌(沖縄読谷村)에서 지낸 2박 3일은 오키나와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오키나와 가정집에서 즐기는 가정식, 홈스테이 호스트인 오토상(お父さん)과 함께하는 잔파비치(残波ビーチ), 유적지 방문은 지금도 생생한 모습으로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틀 동안 황송한 대접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던 중에 한국음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메뉴는 '소불고기'와 '부대찌개'. 군대 취사병이었던 나와 주방보조 2명(배지운, 김동수)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였다. 재료가 부족하여 2% 부족한 맛이었지만 오토상, 오키상은 정말 맛있게 드셨다. 오키나와의 더운 날씨로 아침식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지만 9박 10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홈스테이 기간 동안 오키나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일본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느긋한 성격, 유연한 시간 약속, 넉넉한 식사 인심, 풍류와 유흥을 잘 아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한국인들과 유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였다. 과거,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그들이지만 매사에 긍정적이고 노래와 춤을 통해 아픔을 승화시켜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깊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오키나와는 정말 매력적인 곳임에 틀림없다.

민간교류를 통해 얹힌 실타래를 풀다

이화여대 음악대학 김면승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사업인 'JENESYS 2015'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Cool Japan 리포터'를 선발했다. 나는 일본의 매력을 알리는 'Cool Japan 리포터'의 자격으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다. 구체적으로는 도쿄, 오키나와(沖縄), 나가사키(長崎), 사가현 아리타(佐賀県 有田)를 방문했다. 금번 방일프로그램은 나에게 있어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민간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현지에서 만난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 여겨왔던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学院大学)에서 만난 일본 학생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옛 친구들을 만난 듯한 친근함을 주었고, 오키나와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마치 한 가족과 같은 따뜻한 인정과 친절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오랫동안 한일 양국 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적교

류, 즉 민간인들의 소통이야말로 양국이 화해하고 얹힌 실타래를 풀어 가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일프로그램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Cool Japan 리포터 소감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장준희

2015년 7월 28일부터 2015년 8월 6일(9박 10일) 일정으로 한국 고등학생 69명이 Cool Japan 리포터로서 일본을 방문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일본의 매력에 대해 생각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통'의 연속이었다. 우선, 9박 10일의 일정을 함께한 참가자들과 같이 웃고, 대화를 나누며 정말 많이 친해졌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고,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가 만났지만, 우리는 처음 만났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친해졌다. 치바현립초세이고등학교(千葉県立長生高校)에서의 교류 활동도 잊을 수 없다. 모국어가 다른 한일 양국 고등학생이 한국어와 일본어, 손짓 발짓을 이용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현 아스카무라(奈良県明日香村)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홈스테이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낸 2박 3일도 특별했다. 어색해 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다. 낯선 외국인의 "곤니치와(안녕하세요)"에 미소로 "곤니치와"하며 인사해주시던 아스카무라 주민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했다. 2박 3일 홈스테이 일정이 끝나고 아스카무라를 떠나던 날, 버스가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모두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방일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잘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된 단체 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 부분만을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다음에 일본을 찾아갈 때는 고생스럽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일정을 세워, 더욱 더 깊고 다양한 일본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



고치현 시만토정과 전라북도 고창군 우호교류



시만토정 · 고창군 우호교류협정조인식(2012년 4월)



산·강·바다 자연이, 사람이 건강한 시만토정

시만토정(四万十町)은 2006년 3월에 2정 1촌(구보카와정(窪川町), 다이쇼정(大正町), 도와촌(十和村))의 합병으로 생긴 정(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체)으로 고치현 남서부에 위치하며, 일본의 마지막 청류로 유명한 '시만토강(四万十川)'의 중류에 위치한다. 합병으로 도시 면적은 고치현 최대 642km², 인구는 18,240명이 되었으며, 광대한 면적의 약 9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만토정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희고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오키쓰(興津) 해안은 현 내에서 제일 투명하여 2006년도 환경성에서 '일본의 좋은 해수욕장 백선'으로 선정되었다.

풍부한 자연과 산, 강, 바다의 먹거리가 풍족한 시만토정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니이다 쌀' 및 '시만토 노송나무', 생강, 피망, 표고버섯 등 많은 특산물이 있다.

또한 최근 시만토정에서는 농업 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차세대시설 원예단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과 임업간 자원순환에 의한 1차 산업의 발전과 미 이용재 수익증가, 지역 고용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만토정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실증 실험에 임하고 있다.

우호도시 제휴 체결의 배경

합병 이전에 발족한 '고치현 시만토 지역 국제교류추진협의회'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한일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5월부터 한국인 연수생 5명을 받아 한국어교실 개최, 강사파견 연수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 이벤트 참여, 고령자가 모이는 ‘보람 살롱’ 등 문화교류를 촉진해왔다. 이 한국청년유치사업에서 전라남도 고창군 출신자를 맞이한 것을 계기로 몇 차례 고창군을 예방하여 상호교류를 협의, 추진하고 중학생 파견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상호 이해와 교류가 깊어진 가운데, 2012년 4월 두 도시의 상호이해증진, 우호협력,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했다.

일본 시만토정과 대한민국 고창군의 우호교류협정서 내용 발췌

1. 시만토정과 고창군은 호혜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교육, 문화, 스포츠, 농림수산업, 인재 등의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번영과 발전을 꾀한다.
2. 시만토정과 고창군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교류, 협력하고 양쪽의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킨다.



스카이프를 한국 고창군 초등학교와 교류하며 수업하는 모습



시만토정 중학생 해외연수(2008년 8월)

고치현 시만토지역 국제교류촉진협의회 활동

시만토 지역에서는 구 구보카와정(旧窪川町), 구 다이쇼정(旧大正町) 및 취지에 동참하는 민간 단체와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고치현 시만토지역 국제교류촉진협의회’를 2005년 5월에 발족, 민관이 일체가 되어 국제교류촉진을 목표로 하면서 전라남도 출신자를 1년간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보다 넓은 시야에서 교류를 전개해 가기로 했다.

현재, 정에서 고용하는 국제교류원과 연계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고창군을 비롯해 한국과의 교류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행사에 참여하거나 한국요리교실 개최, 한국시찰연수 실시 등 주민 수준에서 친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 고창군 시찰연수(2013년 10월) 고치현 시만토 지역 국제교류 촉진협의회 한국방문단

국제교류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많은 시정촌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만토정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된 풀뿌리 교류를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한국과의 교류실적과 최근의 한류 붐을 계기로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교실은 첫째 20명이던 학생수가 현재 5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벤트(부스출전과 요리교실 등) 개최 시에 많은 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협의회가 실시한 한국요리교실(김치 담그기)에서는 40명 모집에 100건에 달하는 응모가 와서 일부는 추첨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간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듯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상호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계기로 민관이 일체가 되어 더욱 양국 교류를 진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 안정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포석이 되는 중요한 한 걸음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시만토정 초중학생과 고창군 초중학생이 우호의 고리를 만들어, 미래에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었을 때, 아시아의 이웃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해 가고 싶다.



문의처

시만토정 사무소 기획과
TEL : 0880-22-3124 / FAX : 0880-22-3123
HP : <http://www.town.shimanto.lg.jp/>

(협력: CLAIR, Seoul)

도야마현

일본 중앙에 위치한 도야마현(富山県)은 서울에서 주3회 직항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약 2시간의 비행으로 갈 수 있다. 3,000m급 산들이 이어진 다테야마(立山) 연봉, 수심 1,000m를 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에 가입한 도야마만까지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환경이 있으며, 1년 내내 풍부하고 깨끗한 물과 맛있는 생선을 즐길 수 있다. 히미(氷見) 해안, 아마하라시(雨晴) 해안에서는 바다에 떠있는 것처럼 다테야마 연봉이 솟아 있어 바다 너머로 3,000m급의 연봉을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장소다.

다이내믹한 자연, 예로부터 이어져온 전통공예 및 옛 일본의 풍경, 풍부한 해산물, 산채, 온천 등 도야마에는 다양한 매력이 가득하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눈의 대계곡)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일본의 지붕, 북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立山黒部アルペンルート)는 케이블카와 로프 웨이, 트롤리 버스 등 6개의 교통수단을 타고 부담 없이 방문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산악 관광 루트로 일본 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3000m 급의 산들이 늘어서 있고 웅대한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일본에서 최초로 인정된 3개의 빙하와 고산 식물, 천연기념물인 뇌조 등 귀중한 대자연의 보고다. 4~6월에는 높이가 약 20m에 육박하는 거대한 설벽 '눈의 대계곡', 여름에는 눈부실 정도의 신록,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과 선명하게 변해가는 사계를 즐길 수 있다. 천천히 산책이나 트래킹, 식물 관찰을 하면서 대자연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구로베 협곡 도롯코 열차

작은 도롯코 열차로 일본에서 제일 깊은 V자 협곡을 굽이굽이 달린다. 우나즈키(宇奈月)에



아마하라시 해안



구로베 협곡

서 게야키다이라(檉平)까지 달리는 거리는 20.1km,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천천히 몇 개의 교량과 터널을 달려가면서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청량감,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대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종점인 게야키다이라역 주변에는 오쿠가네바시(奥鐘橋) 및 특별명승지, 특별 천연기념물인 협곡 사루토비쿄(猿飛峽), 구로베강을 따라 있는 죽탕 등 볼거리가 많아 산책하기를 권한다. 이 여행의 시작과 끝인 우나즈키 온천역 주변에는 온천거리가 있다. 노천탕에서는 눈 앞에 펼쳐지는 협곡 산맥과 눈 아래로 도도히 흐르는 구로베강을 바라 볼 수 있으며 자연과의 일체감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일본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천연온천과 현지 재료를 사용한 전통요리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세계유산 고카야마 갓쇼즈쿠리 마을



스가누마 갓쇼즈쿠리 마을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카야마 갓쇼즈쿠리 마을(五箇山合掌造り集落), 프랑스 미술랭 가이드에서 별 3개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아이노쿠라(相倉)’와 ‘스가누마(菅沼)’ 2개 마을이 있다. 지금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통풍경이라 할 수 있는 소박

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남아있다. 험난한 자연을 건디는 견고한 구조, 생활과 생업을 일체화한 합리적인 갓쇼즈쿠리 가옥은 오래된 것은 400년 가까이 된다. 해빙의 봄, 신록, 상쾌한 여름과 계절마다 변하는 매력은 모두 운치가 넘치지만, 많은 눈에 둘러싸여 있는 겨울의 갓쇼즈쿠리는 정적 속에 온기를 느끼게 해주며 정취가 가득하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찾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또한 세계유산에서 보낼 수 있는 민박도 있는데, 이곳에서 맞이하는 맑은 아침의 풍경은 마음도 씻겨 내려갈 정도로 상쾌하다. 올해는 세계유산등재 10주년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예부터 전해지는 민요

도야마현에는 ‘고키리코부시(こきりこ節)’, ‘무기야부시(麦屋節)’, ‘옛츄오와라부시(越中おわら節)’ 등 예로부터 전해지는 민요가 많이 남아 있다. 고카야마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민요인 ‘고키리코부시’. 덴가쿠(田楽)에서 파생된 가무로서 대나무로 만든 민속악기인 ‘사사라(ささら)’의 음색이 더해져 진한 향수를 자아낸다. ‘무기야부시’는 고키리코부시와 함께 고카야마 지방을 대표하는 민요로 집안을 나타내는 문양인 몬쓰키(紋付)와 전통의복인 하카마(袴), 검, 그리고 삿갓까지 무사의 격조를 느낄 수 있는 의상을 입고 추는 춤으로서 매년 9월에 열리는 ‘고카야마 무기야마쓰리(五箇山麦屋まつり)’와 ‘조하나 무기야마쓰리(城端むぎや祭)’에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민속축제인 오와라카제노본(おわら風の盆)으로 유명한 야쓰오마치(八尾町)의 ‘옛츄오와라부시’와 우오즈시(魚津市)의 ‘세리코미초로쿠(せり込み蝶六)’ 등 여행의 매력을 귀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도야마 여행의 묘미다.

도야마의 전통공예와 문화

도야마에는 ‘다카오카(高岡) 청동공예품’, ‘이나미(井波) 조각’, ‘옛추와시(越中和紙)’ 등 전통공예기술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다카오카 청동공예품은 다카오카시의 전통공예로

400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다기, 화병, 향로, 범기, 동상 그리고 범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예품을 빚어냈다. 최근에는 식기와 인테리어 용품, 조명기구 및 건축 자재 등도 다루고 있어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 도야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나미 조각’은 대략적인 조각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200개 이상의 조각 칼을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섬세한 표현으로 정중하게 작품을 만들어간다. 이나미의 ‘즈이센지(瑞泉寺)’에서 이어지는 돌길 곳곳에는 조각 공방과 미술관, 양조장 등이 웅기종기 늘어서 있어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해산물과 산채



도야마만 초밥

‘천연의 활어조’로 알려진 도야마만은 도야마만의 왕자 ‘방어’, 도야마만의 신비 ‘불뚱 꼴뚜기’, 도야마만의 보석 ‘흰새우’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하다. 계절 생선을 신선한 상태로 만끽할 수 있는 ‘도야마만 초밥’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또한 도야마는 사계절이 분명하여 산채 종류도 다양하다. 도야마 기후가 키운 천연 산채를 아낌없이 사용한 향토요리를 즐길 수 있다.

올 3월, 호쿠리쿠 신칸센(北陸新幹線) 개통으로 도쿄까지 2시간 8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 7월에는 미쓰이 아울렛파크 호쿠리쿠 오야베(三井アウトレットパーク北陸小矢部)가 오픈하며 보다 편리해진 매력적인 도야마현을 꼭 방문하기 바란다.

도야마 관광안내 <http://foreign.info-toyama.com/kr/>

(협력: CLAIR, Seoul)

시마넛코 시마네현 관광 캐릭터

시마네현 상공노동부 관광진흥과



시마넛코 프로필

시마넛코(しまねっこ)는 시마네현(島根県)의 관광캐릭터로서 시마네 홍보나 지역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지역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시마넛코는 고양이가 모티브로 머리에는 시마네현의 많은 신사(神社) 지붕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목에는 시메나와(しめ縄) 머플러를 두르고 있다.

시마넛코 프로필

- 이름 시마넛코
- 연령 불명
- 성별 불명(남자?)
- 출신지 시마네현 어딘가.
- 성격 어쨌든 밝다
- 좋아하는 음식 돈치치아지
- 장점 누구든 금방 친해진다
- 단점 요즘 과식으로 움직임이 조금 둔한 점
- 시마넛코 자기 PR
“안녕하세요! 시마넛코입니다~. 시마네 홍보를 위해 왔어요. 요즘 과식으로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지만, 누구든 금방 친해지니까 제가 보이면 말을 걸어 주세요.”(고양이 말투로 인사)
- 공식사이트 시마넛코의 방
<https://www.kankou-shimane.com/ja/shimanekko>

시마넛코의 활동

시마넛코는 평소 지역 행사에 참가하여 이벤트를 펼치거나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실시되는 여행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시마네를 알리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기회가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마네현의 이웃인 돗토

리현 사카미나토(境港)에는 해외의 승객이 승선한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잦아, 배를 타고 시마네현을 관광하는 외국인 손님도 늘고 있다.

- 블로그 <http://www.kankou-shimane.com/blog/category/shimanekk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imanekko?fref=ts>

시마네토 처음 해외로 가다

올해 시마네토는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 C-Festival 'ASIA MANIA'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전통문화, 음식, 관광 등이 소개되었는데, 에히메현(愛媛県) '미캄(みきゃん)', 나가사키현(長崎県) 간바군(がんばくん), 시즈오카현 미시마시(静岡県 三島市)의 미시마루군(みしまるくん)과 미시마루코짱(みしまるこちゃん)과 함께 일본 그리고 일본의 지방을 홍보했다. 시마네토 출연이나 이벤트 출전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지원을 받았다. 시마네토는 메인무대에 매일 등장하여 특유의 '시마네토 댄스'를 선보이며, 경쾌한 퍼포먼스로 한국 관객을 즐겁게 했다. 또한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관광홍보부스에도 등장하여, 많은 방문객 여러분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한국에도 많은 친구가 생겼다.

시마네의 관광지

시마네에는 시마네토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관광지와 식재료가 풍부하다. 시마네현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마쓰에성(松江城)은 올 7월 일본의 국보가 되었고, 400년 전에 지어진 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연을 맺어주는 길로 유명한 산사이며, 일본의 신들이 매년 한번 모이는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 12년 연속 일본 최고의 정원을 자랑하는 '아다치미술관(足立美術館)'. 중세 산출량이 세계 최대였던 세계유산 '이와미 긴잔(石見銀山)',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의 생태계가 동거하는 '오키(隠岐) 세계지오파크', 사무라이 시대의 풍경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일본 유산의 거리 '쓰와노(津和野)', 피부 미용탕인 '다마쓰쿠리(玉造) 온천'으로 대표되는 온천 등 관광지 이외에, 녹아 내리는 느낌과 독특하고 달콤한 향기가 특징인 '시마네 와규(島根和牛)' 겨울 미각의 왕자 '마쓰바(松葉) 게' 등 맛있는 음식도 많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세키슈반시(石州半紙)', 신화의 세계를 지금으로 전하며 영혼을 흔드는 춤 '이와미가구라(石見神楽)' 등의 전통과 문화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마네토와 친구가 된 여러분도 시마네로 꼭 놀러 오셔서 '즐겁고', '맛있는' 감동을 함께 느꼈으면 한다.

- 시마네현 공식 홈페이지(한국어) <http://blog.naver.com/shimanekko>

시마네토 '유루케라®그랑프리'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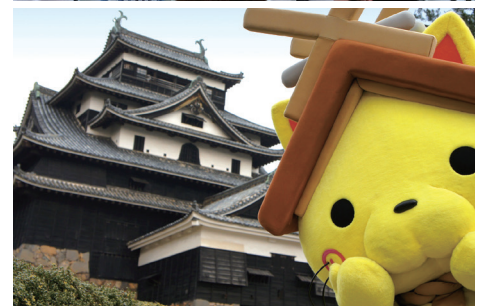
시마네토는 '유루케라®그랑프리 2015'에 참가하고 있다. '유루케라®그랑프리'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일본의 유루케라 인기 투표 이벤트로 인터넷에서 매일 투표가 가능하다. 작년에는 1,699개 캐릭터 가운데 7위였다.

올해 유루케라®그랑프리에 참가한 시마네토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고양이 말투로 인사)
“시마네현 관광 캐릭터 '시마네토'예요! 국보 마쓰에성, 이즈모다이샤, 세계유산인 이와미 긴잔도 있는 '인연의 지역 시마네'를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지난해 7위 보다 순위가 올라서 시마네가 유명해질 수 있도록 시마네토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투표로 응원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투표기간은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시마네토는 만나는 모든 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니 한국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린다.



크루즈선으로 입항한 손님을 환영하는 퍼포먼스



국보 마쓰에성 시마네토



이즈모다이샤 신전의 오시메나와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일본가요대회가 지난 7월 31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예년보다 많은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호에서는 본선 축하공연 가수로 출연한 마유코(繭子) 씨 인터뷰를 다음호에서는 사사키 에리(佐々木恵梨) 씨와의 인터뷰를 연속으로 소개한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네, 처음이에요. 가장 놀란 건 예쁜 고층빌딩이 많아 이런 느낌이거나 싶었어요. 건물 디자인도 일본과는 조금 달라서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 요리 중 먹어본 음식이 있나요?

불고기와 삼계탕을 먹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먹는 편이 아닌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금까지의 활동을 듣고 싶는데, 원래 유화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음악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효과가 같은 게 흘러나와서 그걸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음악 제작을 시작했어요. 뭐랄까 ‘공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시작한 게 계기입니다.

음악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정말 어릴 때 집에 전자오르간이 있었는데, 이걸 배웠다가보다 그냥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럴 때도 있

韓国は初めてですか。韓国に対する印象はいかがですか。

はい、初めてです。まずびっくりしたのがすごい綺麗な高層ビルがいっぱい建っていてこういう感じなんだって、ビルのデザインも日本とはちょっと違っておしゃれな感じだと思いました。

韓国は初めてですか。韓国に対する印象はいかがですか。

はい、初めてです。まずびっくりしたのがすごい綺麗な高層ビルがいっぱい建っていて、こういう感じなんだなあと、ビルのデザインも日本とはちょっと違っておしゃれな感じだと思いました。

何か韓国の料理を召し上がりましたか。

ブルコギとサムゲタンを食べました。日本ではそんなにお肉を食べる方ではないんですけど、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ね。

今までの活動について伺いたいと思います。元々は油絵の学科に通っていたんですけど伺いましたが、音楽の道に進むきっかけは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

元々画家を目指して絵を描いていたんですが、頭の中で絵を描いていると効果音みたいなものが流れてきて、それを外に出してみたいというところか

었지만, 초등학교가 되고서는 마음 속 어딘가에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라는 생각에 계속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그림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서 뭔가 갈등이나 고민 등은 없었나요?

“그림을 그만두고 음악을 할거야!”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림의 연장선으로 음악이 된 것 같은, 앞서 말했듯이 공기에 그림을 그리는 느낌 이어서 확 변했다는 감각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인데,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그게 갈등이라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본 이외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 CD를 냈을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던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해서 ‘왠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마이 스페이스’라는 음악으로 특화된 SNS에 음악을 올리자, 전세계의 여러 곳에서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해외의 TV나 라디오 출연 이야기도 나와 기쁘게 생각하던 차에, 이번에는 일본음악을 해외로 발신하는 이벤트에 나갔죠. 거기서 공연하자 ‘꼭 우리나라에 와서 노래해 달라고 해서 가면, 이번에는 ‘여기도 와 주세요’라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되었네요.

음악활동은 하면서 유념하고 있거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잘 하는 게 있다고 할까, ‘저는 어떤 음악이든지 능숙하게 잘 만들어요!’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 때에는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계속 믿어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요.



앞으로의 활동은?

9월 새 앨범이 나오는데 지금 일본에서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 CD에도 이탈리아 아티스트와의 콜라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 음악制作を始めました。何というか、空気に絵を描いているような気分でやり始めたのがきっかけです。

音楽の道を選ぶ前も音楽に関しての関心はありましたか。

本当に小さい頃は家にエレクトーンがあり、それを習うわけでもなく、自分の好きなメロディーを思いのまま引くのがすごく好きだったんです。そんな時代もあったんですが、小学生になると心のどこかに音楽をやりたい気持ちはあったけれど、私ができるのだろうか…と思い、ずっと忘れていました。

今までやってきていた絵の世界と全く違う道に進む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が、そこで何か葛藤や、悩みなどはありませんでしたか。

「絵を止めて音楽にするぞ」という感じではなく、絵の延長線上で音楽になったような、先ほどの話のように空気に絵を描いているような感じだったのでガラッと変わったという感覚は自分ではないですね。違いがあるとしたら、人前に出ていけないうところ。人見知りなところがあるので、そこがちょっと葛藤といえば葛藤かもしれないですね。

日本だけでなく、世界各地でも活動されていると伺いました。日本以外で活動を行うきっかけはありましたか。

一番初めにCDをリリースしたときから、声が好きとか、色々な国の人が気にかけてくれて、「何だか海外の人が好きになってくれるな」と思いながらも、あまり意識せずやっていたんですが、一時期「マイスペース」という音楽に特化したSNSのようなところに音楽をアップしていたら、世界中の色々なところから反応がありました。それで海外のテレビやラジオからお話をいただき、喜んでうちに、今度は日本で日本の音楽を海外に発信するイベントがあり、そこに出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こで公演したら「ぜひうちの国でも歌ってほしい」と言われ、今度そっちに行き歌うと「じゃ、こっちでも」みたいな感じでずっと続いて今に至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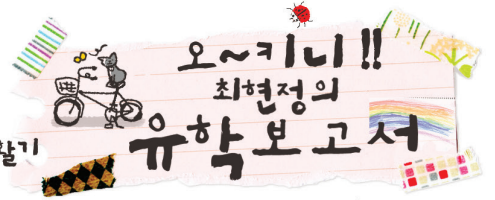
音楽活動をされる上で心がけていることとかモットーなどがございましたら、教えてください。

私は人それぞれに得意としているものを与えられていると思っていて、「私、どんな音楽でも器用に作ります!」というタイプでもないんです。ただ、私が丁寧に音楽を作りさえすれば、私がきつと一番ちゃんと作れるんじゃないかとずっと信じています。そこをぶれずにずっと今後も突き詰めて、磨い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今後の活動は。

9月に新しいアルバムをリリースするので日本でレコーディングしているところです。そのCDにもイタリアのアーティスト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が収録されますが、日本のみならず色々なところに行き、今後もいろんな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りながら一緒に表現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자전거 때문에 파출소 구경을 다 해봤다. 온 종일 학교 도서관 아르바이트로 지쳐 아무 생각없이 밤길 자전거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다가 때마침 파출소 근처에서 순찰중인 순경에게 딱! 걸려... ㅠ-ㅠ

무지근~

신분증! 그 자전거 당신거 맞아요? 조화하면 다나와요~

제 자전거 맞아요~

신분증으로 외국인증을 내보이는데 자전거 차적조화라는 흑까지 붙어 순간 범피자가 된 기분엔 언짢은 마음.

자전거 방법등록 B12345 조화 바란다! 오바~

이 자전거 제꺼 맞다니깐요~

자전거 등록자와 내 이름이 달라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30분 가량을 꼼짝없이 파출소에, 가까운 나의 일본인 지인을 연결시킨 후에야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만 돌아가도 좋아요~

순경아저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

힝~

우리학교 유학생 사이에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배의 물건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흐뭇한 풍습이 있다.

전 장판주세요~ 다다미 바닥이 아직도 적응이 안돼~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어~ 난 트랜스! (220V->110V)

TV, 냉장고, 자전거... 쓸만한거 다 가져가~ 다 물려주고 갈게~

은빛 자전거를 타고 교토의 시내를 맘껏 누빌 생각에 부른 마음으로 나는 자전거를.

난 커텐~

교통비가 비싼 일본에서 절약생활의 스타트는 역시 자전거! 그런데 이 흐뭇한 풍습 중에 자전거는 좀 신중해야 했나보다. 그렇다! 일본에서는 자전거 구입시 구입자가 방법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

앞으로 잘 부탁해~

어쨌거나 이 모든 걸 리싸이클 샵에 팔면 선배는 귀국 비행기 값에라도 보탬 수 있으면만 후배들에게 탁탁 털려도 즐거운 선배의 후한 인심.

어차피 다 처분해야하는데 니들이 도와주는거지 뭐~

득템~ 이득~

파랗고 청명한 9월의 가을하늘. 일본에서의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몇가지 룰을 소개한다.

에잉~ 귀찮은데 그냥 갈까?

비오는날 우산들고 한손으로 자전거 타기 금지!

밤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달릴것!

자전거 2인 동승금지!

자전거 음주운전 5년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

자전거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교토시내의 지도를 짝악! 펼쳐보면 가로와 세로가 반듯한 바둑판 모양, 교토에서 길찾기는 식은 죽 먹기.

오호! 길 순서만 알면 자전거로 교토시내는 거뜬히 누빌 수 있겠어!

*교토에는 교토의 길거리를 가사로한 노래 (京の通り名数え歌)가 있다~

이제는 웃으며 회상 할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추억 한 장을 통해 배운것들. 내 마음은 언제나 은빛 자전거를 타고 은빛 가모가와 (鴨川)를 누비며! 오늘도 화이팅한다.

*가모가와 (鴨川)- 교토시내 중심부에 흐르고 있는 일급 하천.